

대림 제 2주일 강론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춥고 눈도 오고 그래야 겨울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추워지면 따뜻한 계절이 그리워집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풍족함의 고마움을 알 수 있듯이 겨울의 추위는 따뜻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때 좋은 것이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것 자체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잘 이겨낼 때 더 큰 기쁨과 은총이 희망으로 다가옴을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2주를 보내며 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통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포자기 하지않고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는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과 조금은 다른 주제의 내용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가슴에 담고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 오늘 강론을 대신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시”자를 붙이면 묘한 기분으로 변화됩니다. 어느 며느리의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들국화.글

우리 시 어머님은
80하고도 3살이시다.
그런데 80은 어디로 가고 그냥 3살만 남았다
때로는 웃에 응아도 하시고
밤이 되면 온 집안을 울면서 뛰어 다니시며
가끔 모두 나가고 혼자 계실 땐 문을 안으로 잠그셔서
남편이 아파트 앞배란다 창문을 곡예를 하듯이 들어가
문을 연적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땐 가지 말라고
불잡고 울어 대신다 .
남편이 돈 벌어 아이스크림 사다드린다고 하면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드신다.

남편은
집하고 직장이 가까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지만
나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들어오기가 힘이 든다.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고 3 아들 도시락 싸서 보내고
어머니 용변 확인하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드실 죽을 끓이고
청소 하고나면 아침 8시쯤 가게 문을 연다.
가게에서 남편과 내가 먹을 밥을 다시 한다.

그러니 아침만 3 번을 하는 셈이다.

가게에 나오면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해에 내가 장사했던 오랜 세월 중에 손님이 제일 많았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빨래 목욕 가게에서 나온 일거리
거의 새벽 한시가 넘어야 잠을 자곤 했다

어머니는 아기처럼 예뻐다.
목욕을 시켜 옷을 갈아입히면 천사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참 예쁘네요. >하면
<그래 옛날엔 내가 얼마나 예뻐는데>
하시며 까르르 웃으셨다

목욕탕으로 갈 때도 내가앞장서 하나둘하고 가면
어머닌 내허리를 잡고 셋넷하고 따라오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웃었다
나는 그 일 년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밤이면 모두 모여
어머니와 손뼉을 치며 노래도 부르며 온 집안이 웃음꽃을 피웠다.

어머니는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저 아줌마가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 도 깎아 주었다>
고 말씀하시며 고마운 아줌마라고 하셨다

그리고
밥상을 갖다드리면 멀찌감치 앉아서 쳐다만 보신다.
왜 안 드시냐고 하면 미안해서 못 먹는다고 하셨다
내가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리면 그때야 드시곤 했다

하여튼 1년 사시는 동안 고맙다는 소리는 천 번은 들은 것 같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상태를 몰라 겨울이라 새로 솜타서 꾸민 새 이불과 요를 깔아드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한방을 쓰게 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온 이불에 오줌을 누시고
냉장고에 있는 겨울 김장 김치를 모두내서 출입문에 다 쏟아놓으시고
뒷배란다 창고에 있는 설탕도 베란다에 다 부어 놓으셨고
그 위에다
계란한판을 깨서 온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계란과 김치를 얼마나 드셨는지
범벅이 되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요강을 거실마루에 다 얹어서 철버덕 거리면서 놀고 계셨다
어머니는 요강만 치우면 우셨고
딸과 같이 자니 딸 웃도 어머니의 오줌으로 절여있었다
어머니는 종이 기저귀를 채워드리면 갈가리 찢어서 온방에 날리며
후후 불고 계셨다

궁리 끝에
남편이 스티로폼을 몇 장사다 딸 자는 자리는 높여주고
냉장고와 서랍은 나갈 땐 끈으로 반드시 묶어줬다

어떤 날은 내가 베란다에 빨래를 늘어놓으면 다 건너서 요강에 적셔 소파에 늘어났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다
며칠이 지나니
대책도 생기고 적응이 되어갔다
한번은 한밤중에 딸이 고함을 지르며 울길래
놀라서 가보니 어머니가 딸의 목을 조른 모양이었다.

그래도
딸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할머니가 그러신 줄 알면 할머니하고 못 자게 한다며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울었다
학교가 끝나면 장난감을 사와서 같이 놀아드리고
아침엔 할머니 밥도 먹여드리고
잘 때도 항상 손을 꼭 잡고 잤고
돌아가셨을 때도 무섭지도 않은지 딸은 그 방에서 혼자 잤다

남편도
때가 되면 들어와 죽 챙겨드리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베지밀과 제과점에서 금방구운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사다가 드렸다
반찬은 어머니가 갈치를 좋아하셨으므로
갈치를 사서 콩지와 머리는 우리 먹고
남편이 살만 푹 지져서 으개서 드렸고
계란은 아침에 내가 찌놓고 나갔다
물김치를 좋아하시기에 담아드렸더니 너무 소변을 자주 보셔서
드릴수가 없었다.
소변보실 때 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안 시키면 남편이 화를 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거의 몇 번씩 목욕을 하시니 살이 윤기가 나고
머리도 내가 짧게 커트해드리니 항상 찰랑거리고
예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화를 잘 내지 않으시고
까르르 아기같이 항상 웃기만 하셨다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으시는 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았다
이게 8년 전 우리 어머니와
1년 동안같이 한 삶이다

#####

내가 28년 전 시집갔을 때 어머니는
호랑이 보다 더 무서웠다
날마다 쌀 두지 보시고 쌀 퍼냈다 하시고
연탄은 날만 새면 세어보시고 팔아먹었다고 동네가 떠나가게 고함을 지르셨다
그리고
친정식구들이 몇 년 만에 와도 본체만체 하시고
가고나면 월 얻어먹으려 왔냐고
얼마냐 퍼줬냐고 하는 통에 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친정아버지 위독하시다고 전화가 와도 못 가게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큰딸로 임종도 못해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돈이든 뭐든 어디다 잘못 두시곤
나보고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며칠이고 소리를 지르시고

내 옷도 머리도 다 잡아 뜯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은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처녀 때 개신교를 조금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성화와 성경책을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나갔다고니 강냉이 바꿔먹고 없어서
부엌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어머닌 40년을 불교를 믿으셨다고 했다.

남편은
사업한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주위에 여자도 많아
나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다.
그런데다 우리 집에 불일이 있어 찾아온 아저씨들에게
조금만 친절이해도 어머니는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한다고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일러바쳤다
남편도 처음엔 어머니 말을 무시하더니 나중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며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울로 시집가 1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난 그때 한번 결혼하면 그 집에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았다
요즘같이 이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내 꼴은 그냥 산송장처럼 변해갔다

그러다가 집안사정으로
부산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는 서울에 자식들이 모두 있으므로 안 오시려 해서
서울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사드리고
우리는 부산으로 와서
십년을 어머니와 헤어져 살다가 다시 전주로 이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사는 시동생이 갑자기 전주에 찾아왔다
시어머니 문제를 상의하러 왔나보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시동생이 모시려고 했으나
동서가 이혼까지 들고 나와 도저히 힘들다며
형수는 가게 하니 못 모실 거고
그냥 유료시설에다 모시면 어떨겠냐고
얘기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난 시동생이 간 뒤에 며칠을 생각했다
성당에 가도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만자식으로서 마음이 괴롭고 편 칠 않았다.
그런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다
< 시어머니 그냥 언니가 모시면 안 될까?
돌아가시고 나면 형부나 언니나 평생 후회하며 살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난 가슴이 찢려 한참을 생각한 결과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자고 남편에게 청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혹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남편은 처음엔 우리환경에 어찌 모시냐고 펄쩍뛰더니
한참 뒤에야 시동생한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시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다
그래도 얼마간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오셨다는 전화를 받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왔다
그리고
고래고래 고향을 질러대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어머니의 예전 모습이 떠올라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심장이 또 옛날처럼 쿵쿵 방망이질을 해댔다

난 마음을 가다듬고 가게 방에 들어가 잠시 동안 기도를 했다
<하느님 !!!!!
우리어머니랑 저랑 옛날 안 좋았던 기억들이랑 모두 잊게 해주시고
그냥 가엽게만 보이게 해주세요.>
한참 후에
집에 들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 괄괄하고 사납던 모습은 간곳없고
세월 앞에 무너져버린 어머니의 모습이

남편이
어머니보고 쫓아낸 며느리한테 왜 살러왔냐며 미안 하다고 말하라니까
어머닌 적은소리로 미안하다고 말씀 하셨다
남편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작은 아들 하고 사시지 여긴 왜오셨어요?>
하니까
뜻밖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아들집에 있는데 어떤 천주교 직원이 와서 큰아들 집에 가라
그래야 네가 대우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몇 번을 물어도 신기하게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고
그 당시 어머닌 치매가 심하셔서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어머닌 매일 천사하고 놀았다고 말씀하셨고
어떨 땐 신기하게도 혼자서 기도도 곧 잘하셨다.

그리고
남편도 나도 기도덕분인지
어머닌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오셨으며
용변을 치워도 냄새도 안 났다
그해에 손님도 제일 많아 돈도 가장 많이 벌었고
애들도 원하던 좋은 대학에 모두 들어갔다
남편 형제들도 어머니 모셔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너무나 다들 잘해주신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울었다.
문상 온 사람들이 모두 딸이냐고 물었으며
깨끗하고 예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얼굴에 화장을 시켜 드린 줄 알았다고 모두 말했다
이글을 쓰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어머니 또한 천국에 가시길 나는
기도드린다.

이글을 읽으며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